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과 사회화저항감*

The Perception of Housework Self-responsibility and Attitude to Paid Labor Substitution of Wife and Husband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보조연구원 석드보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 수 李基榮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Research Assistant : Deborah, Seok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 : Ki-Young, Lee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housework self-responsibility and attitude to paid labor substitution of wife and husband, examining empirically characteristics of couple's type classified by a complex of perception and attitude.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83 dual-earner couples and 76 one-earner couples having more than one child younger than 18 and living in Seou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Wives perceived housework self-responsibility much higher than husbands regardless of wives' employment status particularly in female-oriented housework such as food-, clothing-related and managerial housework. Second, Couples expressed considerable reluctance about paid labor substitution, and one-earner couples showed more reluctance. Third, Four couple types were categorized by a complex of perception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and attitude. They are 'PLS-oriented & Wife responsibility couple', 'PLS-reluctancy & Wife responsibility couple', 'PLS-dependency couple', 'Dual responsibility couple'.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showed difference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sex role attitude, housework performance.

I. 문제제기

여성의 취업증가 등의 사회구조 변화, 부부간 공평한 노동분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가사노동에의 부부 참여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정내의 생산과정이 사회로 이전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진전되어 가사노동 시간과 노동이 어느 정도 경감되는 추세이지만, 가사노동의 전반적인 수행양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의 취업이 보다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더욱 진전된다면 가정은 가사노동의 관리에서 수행과 사회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나 의식을 들 수 있다. 가정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나 생활주기 등의 객관적 조건은 가정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식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사노동의 실제 수행양식은 가정이 가사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먼저 가정 내부에서 부부가 각각 행하는 가사노동의 종류와 시간량의 일정한 경향과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즉 분담 상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역할규범에 의한 성별 역할 분업의 구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증연구들(Blair & Lichter, 1991; 허경옥, 1994a, 1997; Kamo, 1994; 최수선, 1995; 조미환, 1995)에서도 성역할관념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가사노동을 자신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지를 직접 물어봄으로써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주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조윤경, 1989; 이수정·문숙재, 1991, Lee 외, 1998)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부들이 대체로 사회화에 대해 어느 정도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부인보다 남편이, 여성보다 남성이 가사노동 사회화에 거부감을 더 많이 가진다는 점은 사회화에의 태도 역시 성에 의해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부인들보다 큰 남편들이 다른 한편으로 가사노동을 자기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적었다는 연구결과(堀内 외, 1997b)는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성에 의해 복잡하게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의 차이가 가사노동 분담이나 사회화에 대한 인식에 작용하여 부부간에 불일치를 야기하게 되면 가정의 갈등과 긴장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및 사회화에 대한 태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한 후 유형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가사노동의 분담 및 사회화를 예측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 및 가사노동 수행 이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행동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이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 취업의 증가나 남녀평등 의식의 보편화 등과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러한 가사노동 수행양식은 가사노동을 여성의 당연한 역할로 받아들이는 인식, 즉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이 많은 여성들의 의식속에 그대

로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밖에 타가족원에 대한 가사노동 분담에의 기대, 시간이나 기술 등과 같은 가사노동 관련 자원의 소유정도, 가사노동 선호 등과 같은 정서적 측면 등도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을 뒷받침한다. 여기서는 가사노동 수행의 이유를 가사노동 자기역할 인식, 가사분담 인식, 자원가용성 인식, 가사노동 선호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1)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이란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의 작용에 의해 가사노동을 자기의 역할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사노동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데, 이는 사회적인 의식구조로 인해 책임과 결부되는 정서적 존재인 '여성성'의 정체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山田, 1994; 堀内 외, 1997b에서 재인용). 반면 남성은 보통 가사에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수행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天野寬子 등(1996)은 부인의 근무상태를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무직으로 나누어 부부의 자기역할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편과 부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편들은 모든 가사노동 영역에서 자기역할인식이 낮았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에서조차도 13.8%에 불과하였다. 남편들은 자신의 역할로 많이 인식하는 과업으로 자녀돌보기·대화하기를 비롯한 자녀관련 과업을 꼽았다. 반면 부인들은 자기역할인식이 매우 높았는데, 전일제 취업주부는 자녀 신체적 돌보기를, 시간제 취업주부는 세탁·세탁물건조를, 전업주부는 일상적인 식사준비를 자신의 역할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임정빈·김명희, 1984)에서도 가사노동을 자신이 해야한다는 주부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생활의 경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취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자신이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사노동 분담의식

가사노동 분담의식은 가사를 대신 해주는 사람의 존재나 습관적으로 굳어진 역할분담상태에 대한 의

식, 다른 가족원의 기대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인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주부들은 가사분담을 해야한다는 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지만, (임정빈 외, 1984; 박인경·이정우, 1986)기대하는 항목은 남성 중심형, 공동형 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송혜림, 1988). 그러나 취업주부의 경우 분담의식이 더 높았으며(임정빈 외 1984; 송혜림, 1988), 여성중심형, 남성 중심형 과제에 더 많은 기대를 하였다(송혜림, 1988). 일본에서도 취업주부가 더 많은 가사분담을 원했다(天野寬子 외, 1996). 남편들의 분담의식을 보는 것은 사실상 참가에 대한 의식을 보는 것과 같다. 사례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조성은(1998)의 연구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유형의 남편들은 "남자도 가사노동을 꼭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없지만 서로 함께 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고 하여 가사분담에 대해 새로운 의식을 보여주었다.

3) 자원 가용성 인식

① 시간가용성 인식: 시간가용성은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상황적 자원이 되는데, 많은 연구들(허경옥, 1994a ; 1994b ; 1997 ; 최수선, 1995 ; 신소영, 1996 ; 조미환, 1996)이 남편과 부인 모두 취업노동 시간이 길면 자신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하지만 부인의 취업시간이 남편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다. 직장노동시간이 매우 긴 남성들은 임금노동시간 외의 시간을 또다른 노동으로 보내는 것이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이현아, 1994). 또한 이성희·한은주(1998)의 연구에서 기혼남성들은 아버지 역할행동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시간이 부족하다(51.9%)'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문숙재·조성은(1995)의 연구에서는 은퇴한 기혼남성이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가(가사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거지"라고 응답하였다.

② 기술적 능력의 인식: 가사노동 기술은 인적 자원의 형태로 가사노동의 수행에 투입요소로 작용함으로써 가사양식에 영향을 미친다(이기영, 1987).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의 관습에 영향을 받으며 가사노동 수행주체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남성들보다 월등한 기술적 우위에 있게 된다. 天野寬子 등(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들이 재봉·편물·수예와 특별한 음식의 준비에 공통적으로 기술이 없는 것으로 꼽았는데, 부인의 경우에는 집안수리를 가장 못한다고 하여, 가사노동의 인적자원의 하나인 기술과 같은 수행능력에서도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조미환(1996)은 기혼남성들이 연령이 많을수록, 막내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기술에 대한 장애를 더 많이 인지하여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4) 가사노동의 선호

가사노동에 대해 호의적이고 좋아하는 경우에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복지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부들은 장보기, 정원손질, 비선체적 가족돌보기, 가정경영 등은 좋아하나, 설거지, 다림질, 주택손질 등은 싫어하는 편이다(김외숙, 1981; 이미선·이정우, 1985).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에 대한 전체 선호도가 취업주부보다 높으며 그 중에서도 식생활, 주생활을 더 좋아하는 반면(이미선 외, 1985) 취업주부는 '가계관리'를 선호한다(김외숙, 1981). 일본의 부인들은 근무상태(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전업주부)에 따라 각각 자녀 신체적 돌보기, 세탁·세탁물건조, 일상적 식사준비를 가장 선호하여(天野寛子, 1996),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선호하는 과업이 달라지는 것이 보편적임을 지지한다. 기혼남성들의 가사노동 선호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최근 조미환(1996)의 연구에서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에만 비선호로 인한 장애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일본의 남편들은 자녀 돌보기·대화하기, 가족상대하기 등을 가장 좋아하는 일로 꼽았고 실제로도 이를 가장 많이 수행하여(天野寛子, 1996), 남성의 경우 선호가 수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

시장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인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도는 이러한 시장상품의 구입에 의한 가사노동의 대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 부정적 또는 중간적이었고, 부인이 남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이었는데(조윤경, 1989; 이수정 외, 1991),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Lee 외, 1998).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의 주된 담당자인 여성이 사회화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는 반면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또한 의생활, 주거생활은 긍정적으로, 식생활, 가족돌보기 영역은 부정적으로, 장보기 영역은 중간으로 나타난 점(이수정 외, 1991)은 식생활 및 가족돌보기 영역이 사회화의 한계를 가질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식품재료, 용역, 기구의 사용이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 주부들은 높은 정도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김귀란, 1991).

한편 취업주부는 식생활 영역의 사회화 태도에서 전업주부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조윤경, 1989; Lee 외, 1998), 취업을 한 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은 저장식품의 사회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조윤경, 1989)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장보기 영역에서 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 무직·주부, 피고용기능공·단순노무자, 자영업자의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이수정 외, 1991).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한 주부가 사회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전업주부보다 긍정적인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취업주부 역시 주부역할에 대한 강한 의무감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상품대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양세정, 1993), 이는 취업주부의 태도가 전업주부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그들의 남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부부간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부부가 각각 가사노동을 자기역할로 인식하는 정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의 정도를 조합함으로써 부부의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렇게 구성된 부부유형에 따라 가정의 가사노동 수행양식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부인의 취업여부 및 가사과업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부부의 가사노동 사회화저항감은 어느 정도이며 부인의 취업여부 및 가사과업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가사노동의 자기역할인식과 사회화저항감에 의해 부부는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넷째, 유형화된 각 부부집단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역할 태도 특성 및 가사노동 수행 관련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와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시간일지조사표와 자기 기입식 질문지이다. 시간일지조사표는 하루 24시간을 15분 간격으로 구분하여 부부로 하여금 평일과 휴일 각각에 대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질문지는 부인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족 특성, 성역할관, 가사·육아의 수행정도 및 수행이유,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과 실제 사회화 여부의 문항으로, 남편용은 부인의 질문지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가족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1) 가사노동 수행의 이유: 응답자들에게 26가지의 가사·육아 영역에서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를 표에서 골라 2가지씩 적게 하였다. 수행의 이유 8가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면 즐겁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내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따

로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을 가족이 기대하기 때문에' '평상시 습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며, 하지 않는 이유 8가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즐겁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을 가족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이다.

2)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 가사노동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또는 의무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인지적인 상태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이유의 하나로 작용한다. 가사·육아의 26가지 항목에 대한 수행의 이유 중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 1점, 그 외에는 0점을 주어 부호화 하였다.

3) 가사노동 사회화저항감: 15가지 항목에 대해 '집안 일을 귀찮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전문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시장에서 완제품을 사는 경우도 해당됩니다)라는 질문에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에 1점을, '매우 마음에 걸린다'에 4점을 부여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높은 것이다.

4) 가사노동 수행 시간: 시간일지 조사표에 가사노동 중 '한 일'을 기입하게 하였다. 9가지 과업은 조리, 설거지, 청소·주생활관리, 세탁·의생활관리, 재봉·뜨개질, 자녀돌보기, 가족돌보기, 부모나 친척 관련 일, 시장보기, 은행이나 동사무소 일보기이다.

5)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나 전문인에게 맡기고 있는 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게 하였다. 사회화하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부호화 하였고, 분석에서는 각 영역에서의 점수를 평균하여 사회화정도로 이용하였다.

3. 자료수집과 조사방법

조사일시 현재 18세 이하의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 남편과 그 부인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본 조사는 1995년 10월 16일에서 11월 4일 사이에 조사요원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대상자를 방문, 면접하여 응답자 자신이 기입하고 조사자가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250쌍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59쌍의 표본만이 사용 가능하였다.

분석은 SPSSWIN 7.0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및 t-test, 군집분석, 일원 분산분석 및 scheffe-test, 분할표 분석(crosstab tables)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편의 평균연령은 38.65세, 부인은 35.90세이고, 교육수준은 남편과 부인 모두 대졸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근무형태는 남편의 경우 모두 전일제였고, 부인의 경우는 주부가 47.8%, 전일제 취업주부가 39.6%, 시간제 취업주부가 12.6%였다. 남편의 직업은 판매서비스직/노무직, 사무직, 전문기술직, 관리직에 모두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취업주부의 직업은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남편의 경우 평균 184만원, 취업한 주부의 경우 평균 54만원이었다. 평균자녀수는 1.8명이었으며 막내자녀의 평균연령은 7.2세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 및 수행의 이유

취업주부 가정과 비취업주부 가정의 부인과 남편 집단으로 나누어 부부가 가사노동을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역할인식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가사노동의 5가지 영역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만 골라 정리하였다. 부인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라는 것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의 이유이었던 반면, 남편은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것이 수행하지 않는 이유인 것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주부 부부도 전체적으로 전업주부 부부와 거의 비슷하여, 자기역할인식에서 부부의 차이는 부인의 취업여부와 거의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영역에서는 식생활과 의생활, 가정관리관련 가사노동에서 부부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영역이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과업'으로 여겨져 남편들이 가사노동 기술을 익힐 기회가 없었을 뿐더러 해야한다는 의식조차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편들은 주거 및 육아·가족생활에 참여하기는 해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하면 즐겁기 때문에' 수행한다고 하였다. 특히 남편들이 육아·가족생활을 선호하는 것은 자녀 돌보기가 '정서적인 노동(emotional labor)의 전형적인 예임을 확인하는

<표 1>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 및 수행의 이유

	전업주부 부부		취업주부 부부	
	부인	남편	부인	남편
식생활	자기역할인식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역할인식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생활	자기역할인식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역할인식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생활	자기역할인식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따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육아·가족생활	자기역할인식	하면 즐겁기 때문에	자기역할인식	하면 즐겁기 때문에
가정관리	자기역할인식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역할인식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나타낸다.

것이다(England & Farkas, 1986; Grana 외, 1993에서 재인용).

2.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

〈표 2〉에서 보면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에 대한 남편들의 저항감 정도는 부인들보다 높아 선행연구(조윤경, 1989; 堀内 외, 1997b; 이수정, 1991)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전업주부 남편, 부인, 취업주부 남편, 부인의 순서였다. 저항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사노동의 전영역 평균해서 4집단 모두 50% 이상으로서, 우리나라 부부는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해 상당히 저항감을 느끼고 있으며 식생활, 육아·가족생활, 가정관리 영역에 저항감이 컸고, 주거생활, 의생활에는 적었다. 저항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과업은 가계관리, 자녀 신체적 돌보기, 자녀와 놀기·공부지도였으며, 가장 적게 느끼는 과업은 집안수리, 재봉·편물·수예였다. 전업주부 남편은 식생활 및 의생활을 위주로 부인보다 8가지 과업에서 저항감을 더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취업주부 남편의 3가지 항목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취업주부 가정은 가족 시중들기에서 부부사이에 저항감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돌보기에 대한 요구가 필연적으로 분리가능성의식을 높여준다는 차성란·문숙재(1994)의 연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취업주부는 다른 집단보다 사회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남편은 그만큼의 가능성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표 2〉 부부의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 정도 및 평균차이검정

(단위 : %)

가 사 노 동		전업주부 부부			취업주부 부부			전체	부인간 t-test	남편간 t-test
		부인	남편	부부간 t-test	부인	남편	부부간 t-test			
식생활	일상적 식사준비	81.6	86.8	*	83.1	79.5		82.7		
	특별음식 준비	48.7	59.2		43.4	49.4		50.0		
	설거지	68.4	73.7	*	61.4	56.6		64.8		*
	저장·냉동식품 만들기	65.8	69.7	*	48.2	56.6		59.7	**	*
주거생활	청소	55.3	64.5	*	41.0	54.2		53.5		
	집안수리	32.9	34.2		13.3	36.1	**	28.9	*	
의생활	세탁	52.6	64.5	*	57.8	59.0		58.5		
	다림질	50.0	51.3		38.6	50.6	*	47.5		
	단추달기·단하기	47.4	55.3	*	43.4	44.6		47.5		*
	재봉·편물·수예	34.2	39.5	**	22.9	22.9		29.6		***
육아·가족생활	식료품·잡화 시장보기	86.6	78.9		84.3	78.3		82.0		
	가계관리 (식단·예산·가계부)	96.1	90.8		96.4	94.0		94.4		
가정관리	자녀 신체적 돌보기	94.7	89.5		88.0	91.6		90.9		
	자녀와 놀기·공부지도	85.5	86.8		83.1	80.7		83.9		
	가족(노인, 환자)시중들기	76.3	86.8	*	61.4	77.1	***	75.1	**	*
# 전 체		65.1	68.8		57.8	62.1		63.3		

*** p < .001 ** p < .01 * p < .05

전체 t-test는 실시하지 않았음.

3.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 및 사회화 저항감의 유형화와 집단의 특성

1)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 및 사회화 저항감의 유형화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집단의 수에 대한 군집분석을 한 후 그 결과 나타난 유형들의 빈도 및 유형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집단의 수를 4개로 하였다. 유형화된 집단이 네 차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차원에서 $P<.001$ 의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집단들의 상대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 차원의 점수를 표준화한 점수와 scheffe-test의 결과를 기초로 집단간 상대적 순위를 정하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수가 가장 적은 집단 1(++++)은 남편의 자기역할인식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 부부가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남편의 자기역할인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부분적으로 사회화하면서 부부가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고 직접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부부 역할책임형 부부'라고 이름을 붙였다. 집단 2(+---)의 특징은 부부의 사회화저항감이 모두 적지만 자기역할인식에

서는 부인만 높다는 것이다. 즉, 부부가 가사노동의 어떤 부분을 사회화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인만이 자기역할로 생각하고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어 '사회화지향·부인역할책임형 부부'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3(++++)은 부인의 자기역할인식이 높은 반면 남편의 자기역할인식은 낮은 편이며, 부인과 남편의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모두 커서 사회화하지 않고 부인만이 자기역할로 인식하고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어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 부부'라고 하였다. 수가 가장 많은 집단 4(----)의 부부는 부부 모두가 자기역할인식도 낮고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낮기 때문에, 부부 모두 자신이 직책하는 대신 사회화에 의존하여 가사노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 부부'라고 하였다.

2) 부부의 유형별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표 4>에서 보듯이 부부의 연령, 부부의 교육수준, 부인의 직업, 부인의 근무형태, 부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자녀수였다. 부부의 나이는 네 가지 유형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화거부·부인역할

<표 3> 각 집단별 가사노동 차원의 점수와 일원분산분석 결과

차 원	유 형	부부역할	사회화지향,	사회화거부,	사회화의존,	검증결과
		책임형 1 (N=13)	부인역할책임형 2 (N=54)	부인역할책임형 3 (N=47)	역할회피형 4 (N=45)	
부인의 자기역할인식		15.00	18.37	18.36	5.71	F= 86.248***
scheffe		a	a	a	b	
남편의 자기역할인식		12.23	2.41	1.77	1.60	F= 89.756***
scheffe		a	b	b	b	
부인의 사회화 저항감		43.54	39.15	47.70	36.76	F= 24.469***
scheffe		ab	bc	a	c	
남편의 사회화 저항감		47.15	36.43	52.66	42.80	F= 60.265***
scheffe		b	d	a	bc	

scheffe-test의 부호는 점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동일한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4〉 부부의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유형	부부 역할책임형 (N=13)	사회화지향· 부인책임형 (N=54)	사회화저부· 부인책임형 (N=47)	사회화의존· 역할회피형 (N=45)	검증결과					
연령	부인	29.92 b	35.36 ab	38.89 a	35.11 ab	F=6.880***					
	남편	32.92 b	38.58 ab	42.26 a	36.60 b	F=7.109***					
scheffe-test의 부호는 점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동일한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교육 수준	범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x ² =16.894*
	부인	대학원 이상	1	7.7	3	5.6	2	4.8	6	14.0	
		전문대·대졸	10	76.9	23	42.6	18	42.9	19	44.2	
		고 졸	2	15.4	25	46.3	13	31.0	14	32.6	
		중졸 이하	0	0	3	5.6	9	21.4	4	9.3	
	계: 152		13	100.0	54	100.0	42	100.0	43	100.0	
	남편	대학원 이상	1	77.7	11	20.4	7	15.9	14	31.8	
		전문대·대졸	12	92.3	30	55.6	22	50.0	18	40.9	
고 졸		0	0	13	24.1	13	29.5	10	22.7		
중졸 이하		0	0	0	0	2	4.5	2	4.5		
계: 155		13	100.0	54	100.0	44	100.0	44	100.0		
직업	범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x ² =34.517**
	부인	관리직	0	0	0	0	0	0	1	2.2	
		전문기술직	4	30.8	7	13.0	2	4.3	12	26.7	
		사무직	2	15.4	12	22.6	5	10.6	9	20.0	
		노무직	0	0	1	1.9	4	8.5	2	4.4	
		판매서비스직	1	7.7	6	11.1	3	6.4	12	26.7	
		가정주부	6	46.2	28	51.9	33	70.2	9	20.0	
	계: 159		13	100.0	54	100.0	47	100.0	45	100.0	
남편	관리직	0	0	14	25.9	15	31.9	8	17.8		
	전문기술직	8	61.5	14	25.9	9	19.1	16	35.6		
	사무직	3	23.1	17	31.5	8	17.0	11	24.4		
	노무직	1	7.7	4	7.4	9	19.1	6	13.3		
	판매서비스직	1	7.7	5	9.3	6	12.8	4	8.9		
	계: 159		13	100.0	54	100.0	47	100.0	45	100.0	
부인의 근무 형태	범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x ² =26.120**
	전일제 근무		6	46.2	19	35.2	11	23.4	27	60.0	
	시간제 근무		1	7.7	7	13.0	3	6.4	9	20.0	
	전업 주부		6	46.2	28	51.9	33	70.2	9	20.0	
계: 159		13	100.0	54	100.0	47	100.0	45	100.0		
월평균 근로소득	부인	58.31	ab	56.67	ab	23.51	b	81.62	a	F=6.718***	
	남편	192.69		194.93		182.50		171.44		F=.458	
월평균 재산소득		55.38		32.83		20.64		14.64		F=1.319	
자녀수		1.38	b	1.81	ab	2.04	a	1.69	ab	F=3.621*	

scheffe-test의 부호는 점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동일한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책임형'과 '부부 역할책임형'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나 자기역할인식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교육수준이 아주 높으면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적고 아주 낮으면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많으며, 전문대 이상 부인의 학력은 남편의 역할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각 유형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만 '부부 역할책임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이 모두 높을 때 남편의 역할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부인의 직업에 따라서도 각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데, 먼저 부인이 가정주부인 경우는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에서 가장 많았고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에서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이 직업을 가진 경우에 사회화에의 거부감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인의 직업 종류별로도 유형간 차이를 일부 발견할 수 있는데, '부부 역할책임형'과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의 경우에는 부인이 전문기술직인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훨씬 높아서, 부인이 이러한 직업을 가진 경우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적거나 조금 있는 정도이며, 가사노동을 부인의 책임으로만 인식하는 정도가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보면, 전일제 근무는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부부 역할책임형'에서 다음으로 많았다. 전업 주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었고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한편 시간제 근

무는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전일제 근무와 시간제 근무 사이의 차이보다는 전일제든 시간제든 부인의 취업 여부가 각 유형의 차이에 더 많이 기여함을 시사한다. 부인의 소득 역시 각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에서 약 월 8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에서 가장 낮았다. 이렇게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의 부인들의 소득이 높고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의 부인들의 소득이 낮으며 나머지는 중간수준인 것은 이들의 직업 유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는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에서 가장 많아서 평균 2명 정도였고, '부부 역할책임형'에서 가장 적어서 1명에 가까웠다.

(2) 성역할태도 특성

성역할태도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면 1점, 매우 반대하면 4점을 주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을수록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인의 성역할태도는 <표 5>에서와 같이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고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 두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과 '부부 역할책임형'의 경우 부인의 자기역할인식이 매우 낮거나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 유형 부인들의 진보적인 성역할태도가 낮은 자기역할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들의 성역할태도

<표 5> 부부의 유형별 성역할태도 특성

		유형	부부 역할책임형 (N=13)	사회화지향· 부인책임형 (N=54)	사회화거부· 부인책임형 (N=47)	사회화의존· 역할회피형 (N=45)	검증결과
		부인	남편				
성역할 태도	부인		2.77 ab	2.53 ab	2.26 b	2.84 a	F=5.650***
	남편		2.46	2.22	1.91	2.27	F=3.437*

scheffe-test의 부호는 점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동일한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편인 가운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형이 ‘부부 역할책임형’이었고 가장 보수적인 유형이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가사노동관련 특성

① 가사조력자

〈표 6〉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부 역할책임형’이 가사조력자가 있는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많았고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차이를 보였다. 조력자의 유형 중에서도 사회화에 대해서 저항감이 적은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과 ‘사회화지향·부인역할책임형’에서 돈을 주고 조력자를 고용하여 가사노동을 위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부 역할책임형’에서는 가사조력자가 있는 비율이 많았지만 친척이 도와주는 비율이 대부분이어서, 부부의 연령 및 생활주기상 부부의 본가에서 가사노동 수행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한다.

② 가사노동 시간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로 ‘사회화거부·부인책임형’의 부인이 항상 가장 긴 시간 가사노동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표 7). 평일 육아·가족생활을 보면, ‘부부역할책임형’부인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이들 유형의 가정생활주기에서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연령이 젊은 부부가 ‘부부역할책임형’에 속하며 따라

서 어린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 육아·가족생활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사회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같아도 역할책임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사회화지향·부인책임형’과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 부인들의 평일 식생활 가사노동 시간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상 사회화에 한계가 있고 이들의 남편이 거의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부인의 가사노동량은 결국 자신의 역할의식에 기준하여 조정됨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셋째로, 남편들은 평일에 가사노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가 휴일에 주거생활과 육아·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부부역할책임형’의 남편에게서 뚜렷한데, 이들은 평일에도 가사노동을 하지만 이는 육아·가족생활에 집중되어 있다가 휴일에는 식생활, 주거생활, 의생활에서도 다른 세 유형에 비해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이 유형의 부부는 평일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뚜렷이 많이 가사노동을 하지는 않지만 휴일에는 가사노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부부가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나머지 세 유형의 남편들은 보통 주거생활 및 육아·가족생활을 제외하고는 가사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③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

전체적으로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적을수록 사회화 정도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

〈표 6〉 부부의 유형별 가사조력자 특성

	유형	부부 역할책임형 (N=13)		사회화지향·부인책임형 (N=54)		사회화거부·부인책임형 (N=47)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 (N=45)		검증결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사조력자 유무	있다	5	38.5	13	24.1	5	10.6	12	26.7	$\chi^2=6.250$
	없다	8	61.5	41	75.9	42	89.4	33	73.3	
조력자 유형	친척	4	30.8	5	9.3	2	4.3	5	11.1	$\chi^2=15.618$
	유급노동	1	7.7	6	11.1	1	2.1	7	15.6	
	이웃	0	0	2	3.7	2	4.3	0	0	
	없다	8	61.5	41	75.9	42	89.4	33	73.3	

〈표 7〉 부부의 유형별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검증

(단위 : 분)

변수	부부 가사영역	유형	부부	사회화지향·	사회화거부·	사회화의존·	검증결과
			역할책임형 (N=13)	부인책임형 (N=54)	부인책임형 (N=47)	역할회피형 (N=45)	
평 일	부 인	식생활	117.69 ab	127.78 a	131.81 a	92.33 b	F=3.696*
		주거생활	38.08	51.11	51.38	30.33	F=1.937
		의생활	13.850	32.22	39.57	21.00	F=2.079
		육아·가족생활	177.69	121.94	113.62	89.33	F=1.933
		시장보기·은행	19.62	32.50	37.02	19.00	F=1.473
	남 편	식생활	2.31	3.06	6.06	3.00	F=.185
		주거생활	4.62	.83	.63	2.33	F=1.199
		의생활	0	0	1.91	0	1.618
		육아·가족생활	36.92 a	12.78 ab	6.70 b	13.67 ab	F=2.856*
		시장보기·은행	0	1.39	0	.67	F=.443
휴 일	부 인	식생활	103.85	124.44	128.94	96.33	F=2.146*
		주거생활	83.08 a	40.28 b	46.91 ab	42.33 ab	F=2.408*
		의생활	41.54	26.39	33.83	32.33	F=.443
		육아·가족생활	103.85	69.72	61.60	82.67	F=.670
		시장보기·은행	25.38	34.72	36.70	30.67	F=.192
	남 편	식생활	16.15 a	.28 b	3.19 b	4.33 b	F=4.421**
		주거생활	76.15 a	15.00 b	24.26 b	20.00 b	F=5.190***
		의생활	17.31 a	1.67 b	1.28 b	1.33 b	F=6.756***
		육아·가족생활	96.92	73.33	63.51	64.67	F=.368
		시장보기·은행	9.23	12.22	17.87	13.33	F=.193

scheffe-test의 부호는 점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동일한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8〉 부부의 유형별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도 차이검증

(단위 : %)

가사 영역	유 형	부부	사회화지향·	사회화거부·	사회화의존·	검증결과
		역할책임형 (N=13)	부인책임형 (N=54)	부인책임형 (N=47)	역할회피형 (N=45)	
식생활		15.0	9.3	5.3	15.6	F=2.269*
주거생활		9.6	10.2	9.6	13.9	F=0.705
의생활		13.5	19.0	13.8	20.6	F=0.676
육아·가족생활		15.3	7.9	4.3	10.0	F=1.935
가정관리		3.8	4.6	5.3	1.7	F=1.463
전체		15.4	12.5	8.9	16.4	F=1.506

하지 않았다(표 8). 각 영역별로는 식생활 영역에서 만 유형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과 '부부역할책임형'의 사회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저항감의 정도로 보았을 때는 '사회화지

향·부인책임형' 부부가 '부부역할책임형'보다 사회화 정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로는 반대로 나타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부부역할책임형'이 사회화에 대해서 어느정도 저항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

만 실제로는 사회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무상의 가사조력자와 같은 인적자원, 소득 및 실물 자산과 같은 물적 자원이 풍부한 점과 어린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 유아원 및 유치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부부 역할책임형'의 높은 사회화 경향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영역별로 네 유형간의 차이를 흐리게 하여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과 실제 사회화 정도간의 부적인 관계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과 사회화저항감이 각각 어느 정도이고, 이 2가지 차원을 조합하면 부부가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또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가사노동의 자기역할인식을 가사노동에 대해 의무감·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한 후, 가사노동의 영역별로 부부의 자기역할인식을 살펴보고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부부를 비교해 보았다. 다음으로 가사노동 사회화저항감을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해 가지는 거부감·저항감으로 정의하고, 가사노동의 각 영역에서 부부의 사회화저항감을 알아보고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 및 사회화저항감의 두 차원에 의해 부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가정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성역할태도 특성, 가사노동 수행관련 특성을 분석, 비교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사노동에 대한 자기역할인식이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부부간에 매우 크게 차이나는 것은 부부가 성에 따른 역할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점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취업주부의 역할과중문제 뿐 아니라 자신의 다양한 생활경험을 제한하고 가정에서의 소외감을 야기시키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생활도 왜곡시키는 문제(이기영 외, 1997)가 발생하므로, 성에

다른 역할 규범으로부터 인식을 전환하고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성이 요구된다. 특히 여러 가사 영역에 골고루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돌보기와 같은 특정 영역에 치중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인들도 역할에 따른 규범에서 벗어나 남편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 남편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적 우위 때문에 자신이 하기보다는 분담을 통해 남편으로 하여금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둘째, 부인은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이유로서 자기역할인식을, 남편은 가사노동 수행을 하지 않는 이유로서 자기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은 점은 부부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의식이 성에 의해 크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준다. 이제까지 가사노동의 수행과 관련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성역할관념 가설'을 비롯한 여러 가설이 가사노동의 수행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성역할관념 가설'이 다른 가설들보다 부부의 가사노동 수행을 훨씬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부인이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 남편이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 저항감이 더 큰 점은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하여 부부간 불화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개인이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해 높은 저항감을 가지는 것은 가사노동을 가정 내의 일로만 생각하여 가정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사노동을 간소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비용의 문제나 고유한 가정문화와의 양립을 유지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통한 대체의 이점을 받아들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사노동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부인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유용한 방법이라면 부부간 의사소통을 통해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일치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 영역 중 가족 시중들기에서 취업주부 부부간에 사회화에의 저항감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앞

으로 노인인구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과업이 부부간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관의 증가 등 정책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넷째, 가사노동 각 영역에 대해 사회화저항감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미래의 사회화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육아·가족생활 영역은 부부가 좋아하는 과업이며 가정관리 영역과 함께 위임이나 대체가 힘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사회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생활, 의생활에 대해서는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적음에 따라 이 영역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생활 영역의 상품대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높은 점은 사회화로 인한 단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자기역할인식과 사회화저항감에 따라 부부를 유형화한 결과 다음과 4집단이 도출되었다. '사회화지향·부인역할책임형'은 부부 모두 사회화를 지향하면서도 부인만 자기역할인식이 높은 유형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이었다.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은 부부가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크며 부인만 자기역할인식이 높은 유형이며,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은 부부 모두가 사회화에 대한 저항감이 적은 동시에 자기역할인식도 낮은 유형이다. '부부 역할책임형'은 부부 모두 사회화저항감이 조금 있으면서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넷 중 가장 적은 비율이었다. 부부의 유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우선 '사회화지향·부인역할책임형'에서 보듯이, 가사노동의 일정 부분은 사회화하지만 남편의 참여가 적어 고정된 역할에 따른 분담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 가정이 가장 보편적인 유형일 것이다. 이러한 가정의 사회화 수준은 크게 높지 않으며, 이때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부인의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전통적 성역할관념을 가진 부부의 경우 '사회화거부·부인역할책임형'에서 보듯이, 남편은 사회화 저항감이 크면서도 자신이 하지는 않으며 부인도

사회화하기보다는 자신이 손수 하는 편을 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부가 가정내 생산만을 고집하며 부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통적 가정도 상당수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화의존·역할회피형'에서 보듯이, 부부 모두 가사노동에 대해 자기역할인식이 낮기 때문에 많은 가사노동을 사회로 이전하고 가정관리적 측면의 가사노동에 역점을 두는 유형이 취업주부 부부를 중심으로 확산되리라고 전망된다. 또한 그 수는 적지만 부부 모두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고 도와주는 친척 등의 자원이 많으며 성역할에서 근대적인 신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부부 역할책임형'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부는 식생활의 사회화와 더불어 육아시설의 이용을 통한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많이 진전시킬 것이며, 부인의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가사노동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유형별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점에서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인식과 사회화저항감은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성역할태도 특성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가사노동의 실제 수행과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의 태도 및 의식을 살펴보고 부부를 유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 및 의식이 실제 수행이나 사회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 둘 간의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차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해 가지는 의식의 하나로 저항감을 들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역할규범을 설명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저항감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상품특성 등 기타 실제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김귀란(1991).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의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I), *대한가정학회지* 19(1), 55-64.
- 문숙재 · 조성은(1995).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방법론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39-149.
- _____ · 차성란(1994). 가정생산의 분리가능성의식과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산활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03-117.
- 박인경 · 이정우(1986). 도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간의 관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03-117.
-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신소영(1996). 계층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자원이론, 시간 가용성 가설, 성역할 가설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양세정(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회지* 4(2), 17-28.
-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미선 · 이정우(1985). 주부의 자아존중감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22-34.
- 이성희 · 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수정 · 문숙재(1991).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209-226.
- 임정빈 · 김명희(1984).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연구-서울시내 거주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3-33.
-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성은(1998).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말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윤경(1989).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관한 연구-성역할태도 및 가사노동 가치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허경옥(1994a). 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 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90-105.
- _____ (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 Blair, S.L. & Lichter, D.T.(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 Grana, S.J., Moore, H.A., Wilson, J.K. & Miller, M. (1993). The contexts of housework and the paid labor force; women's perceptions of the demand levels of their work,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28(5-6).
- Kamo, Y.(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199
- Lee, Y.S., Lee, K.Y., Kim, O.S., Cho, H. K., Setsu, I., Hiroko, A., Haruko, A., Kaoru, H., Reiko, M., Etsuko, S., Jun, I., Takeshi, M.(1998). Comparative Study of Paid Labor Substitution of Housework(PLSH)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amilies, *Journal of ARAHE*, 4.
- 堀内 かおる · 天野寛子 · 伊藤.(1997b). 家事労働観と生活時間から見る夫妻のジェンダー関係-1995年世田谷區在住雇用労働者夫妻の調査から-. *日本家政學會誌* 48(10).
- 天野寛子 · 天野晴子 · 祭藤悦子 · 松葉口玲子 · 伊藤 (1996). 世田谷區民 生活時間 ジェンダー分析. 世田谷ライフデザイン研究会.